

## 건강한 노년<sup>老年</sup>으로 생활의 즐거움을



무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벽두부터 평창 올림픽이 있고, 여름에는 러시아 월드컵 대회 등 큰 스포츠 이벤트가 연달아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들께 즐거움을 주는 한 해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MBC 본사는 지난 해 12월, 새 경영진이 출범함으로써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해와 더불어 MBC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써 일류 방송의 전통을 지켜내고, 다매체 환경에서 가장 강할 수 있는 경쟁력을 살려 다시 한 번 'MBC르네상스'를 이뤄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 임원진이 각종 난관을 잘 극복하여 '만나면 좋은 친구' MBC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출해줄 것을 믿으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사무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됩니다. 본사 지원 의존도는 더욱 힘들어지는 냉엄한 현실을 느낍니다.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 사무처는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맬 각오

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우회보 광고 수주 노력 등 사우회 운영 재정에 보탬이 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회원 복지책의 하나인 '백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은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당해 병원 사정으로 중단 됐지만, 중앙추모공원과 협력 협약, 세란병원과 체결한 건강검진료 대폭 할인, 그리고 예담함 상호회사와 협약 등은 계속 유효함으로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해 스물 다섯분의 회원님들께서 유명<sup>유명</sup>을 달리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주십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사우회 회원 각자가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하시어 생활의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라며, 새 경영진이 이끄는 본사가 하루빨리 시청자의 신뢰 회복으로 사랑받는 방송이 될 것을 성원하면서 회원님들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아침  
(사)문화방송 사우회장 이 연 현

## 다시 만나 더 좋은 MBC를 만들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우회 선배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문화방송은 격랑을 헤쳐 나왔습니다. 흔들리는 MBC호를 보며 안타까워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애정어린 관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MBC 앞에는 여전히 만만찮은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지상파는 더 이상 독점적인 플랫폼이 아닙니다. 온라인, 모바일 같은 디지털 시장으로의 진출은 회사의 명운을 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저력을 믿습니다. 사장의 자리를 맡은 지 한 달 남짓 밖에 되지 않았지만 회사가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고 있음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제작 현장의 PD, 엔지니어, 촬영감독 등 수많은 구성원들이 일에 집중해, 한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도 기척을 느끼지 못하고 모니터와 뷰파인더에 집중하며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에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MBC는 꽃길만을 걸어오지 않았습  
니다. 무수한 난관을 이겨내고 시청

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방송을 만들어냈습니다. MBC에 흐르고 있는 '일류 DNA, 도전 DNA, 창조 DNA, 소통 DNA'의 힘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연말 어느 밤, 여의도 옛 사옥을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보라색 건물을 보며 86년 입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열정으로 뛰었습니다. 'MBC 제2의 전성시대'를 이 곳 상암동에서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일궈냈던 영광을 재현해내겠습니다. 저만의 다짐이 아닙니다. 새해를 맞는 MBC 모든 구성원들의 각오이자 약속입니다.

올해 회사의 모토는 "다시, 좋은 친구 MBC"입니다. 다시 만나 더 좋은 친구 MBC를 만들기 위해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서는 저희들에게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8년 새해 아침  
(주)문화방송 사장 최 승 호





## 사우회 신년인사회 열려



사우회 신년인사회가 1월 16일 저녁 6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신년인사회에는 서규석, 김민식 고문, 강성구, 엄기영 전 사장 등 사우회원 480여명과, 최승호 사장, 정형일 보도본부장, 최원석 드라마본부장 등 MBC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에는 본사가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었어서 송년회를 개최하지 못해 올해 신년인사회를 하게 됐다”고 말하고 “올해도 본사의 지원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호 본사 사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를 MBC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하는데 전념해서 드라마왕국, 예능왕국의 명예를 되찾고 뉴스데스크를 최고로 신뢰받는 뉴스로 만들겠다”고 밝혀 사우회원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서규석 고문의 건배사에 이



여흥이나 행운권 추첨 등이 생략된 검소한 행사였지만, 강성구 전 사장이 전인권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무반주로 열창함으로써 장내 분위기를 훈훈하게 띄웠다.

사우회원들은 덕담을 나누며 짧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본사에서는 회원들에게 별꽃과 ‘2018 MBC다이어리’를 각 한 점씩 증정했다.



이 회장은 끝으로 “최승호 사장의 새 체제가 MBC의 새 역사, MBC르네상스를 이뤄 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 국회의원 박영선(보도)회원이 등단해 “MBC기자, 앵커를 한 덕분에 4선 국회의원의 영예를 누리고 있어 회사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MBC가 경쟁력을 회복해 최고의 방송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 키자니아 서울, VR연구소 신규 오픈

글로벌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사장 노혁진)은 12월 15일 하나투어와 함께 가상현실을 통해 세계를 여행하는 ‘VR여행연구소’를 신규 오픈했다. ‘VR여행연구소’는 미래 유망 직업으로 꼽히는 여행 플래너를 미래형 비즈니스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VR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다.

VR기기를 착용하고 세계의 ▲자연 경관 ▲도시 경관 ▲동물 친구들 등 여행 테마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생생한 VR영상을 체험하는 것으로, 실제 다니는 것처럼 리얼한 VR영상을 통해 세계 곳곳의 특별한 여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기반으로 여행객이 편안한 코스로 관광할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을 완성하는 내용이다.

VR기술로 인해 하늘, 땅 등을 360도 시각에서 볼 수 있어 여행의 생동감과 흥미로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를 체험하는 건문은 물론, 직접 상품을 구성하는 형식인 만큼 창의력까지 키울 수 있는 유익한 체험이다.



## 예다함 상조, 신규 가입회원에게 추가로 상품권 제공

사우회가 상호 협력협약을 체결한 The-K 예다함 상조에서 새해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예다함 상조는 사우회원이나 회원이 추천하는 누구라도 1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예다함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 기간 중에 가입하는 경우, 종전의 7개월 납입금 할인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며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상조와 관련된 궁금한 내용은 사무처(02-722-7416)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경 · 조사

■ 구순 ■

고처황(미주)01/04 이달형(특별)02/20

■ 팔순 ■

차기동(업무)02/02	권명안(관리)02/14	이동섭(편제)02/14
이성일(대구)02/14	황선필(특별)02/20	김정수(보도)02/21
조정석(대구)03/03	최낙호(관리)03/03	김지현(업무)03/08
정상화(대구)03/18	최호철(관리)03/23	

■ 고희 ■

김용철(보도)02/14	문용수(관리)02/15	김승수(편제)03/02
유태희(관리)03/07	유재석(기술)03/19	조병영(관리)03/22
박흥영(편제)03/24	심준보(업무)03/25	

■ 회갑 ■

이승열(보도)02/10	안현덕(관리)03/08	조복행(관리)03/18
윤정숙(ANN)03/30	박경희(편제)04/29	방기천(기술)05/16

■ 결혼 ■

이창우(편제)딸11/19	권윤성(기술)아들11/25	편일평(보도)차남11/25
김광배(관리)장녀12/02	정연태(편제)아들12/03	권태석(관리)차남12/10
장명호(편제)차녀12/25	곽노우(기술)딸12/30	오광택(보도)장녀01/06
정옥균(기술)장녀01/13		

■ 부음 ■

유근혁(기술)장모상11/10	이정준(보도)장모상11/15
박정근(편제, 영상)장모상11/20	박영민(보도)장모상11/30
박선영(보도)모친상12/03	이여춘(편제)장인상12/09
황인뢰(편제)모친상12/09	임영택(편제)모친상12/09
홍순흥(편제)장모상12/17	김사성(관리)모친상12/22
정명규(편제)모친상01/15	

회원 / 회비관리

■ 연회비 ■

11월 : 권수훈('17) 김영금('15~'17) 박문식('17) 선남준('17)  
안영식('15~'18) 유혜자('17~'19) 윤풍기('18~'19) 이동섭('17)  
이상세('18) 이승문('17~'18) 이유호('16~'17) 장영준('16~'17)  
정영웅('17) 최정일('15~'17)

12월 : 김관영('17) 김승한('14~'17) 김신명('23~'27, 80세 납부 끝)  
김영수('14~'15) 김우중('16~'17) 김종수('18)  
안계홍('16~'17, 80세 납부 끝) 양경운('16~'17) 육창웅('17)  
윤호찬('16~'18) 이명자('17) 이창식('17~'19) 전병욱('17~'18)  
정균('17~'20, 80세 납부 끝) 조은국('16~'17)  
최선규('17~'22, 80세 납부 끝) 최영호('18) 최우철('17)  
최정숙('19~'23, 80세 납부 끝) 하영현('17) 한병우('15~'18)  
홍순흥('17~'18) 황효성('18)

1월 : 김철영('18) 김희을('18, 80세 납부 끝) 민경창('18)  
박승선('16~'18, 80세 납부 끝) 이하걸('18) 정갑표('18)  
정명환('18) 조석영('15~'18) 차인태('19~'20) 홍운호('17)  
홍환식('16~'18, 80세 납부 끝)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 임택근 010-8757-1407 송파구 송이로 36길 42-10  
정재순 010-5131-1664

편제 : 김경태 동작구 상도로 34가길  
김재동 마포구 성미산로 23길 54  
김철진 동작구 상도로 346-2  
이명재 구로구 구로중앙로 134

보도 : 윤능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27  
전재철 인천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한병우 강남구 개포로 303

ANN : 김명순 서대문구 연희로 11자길

기술 : 노영남 경기 광명시 광명역로 26  
정병수 서초구 효령로 41

관리 : 손원록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23번길 10  
안호선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 1587  
최한상 010-7161-5689

대구 : 최영달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34길 141  
조무영 대구시 남구 자유 5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국환(관리)

11월 12일 대둔산 산행 중 심장  
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1986년 총무부에 입사해 2010  
년 6월 정년퇴직했다. 등산동  
호회 활동과 사우회 행사 지원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홍기룡(보도)

11월 2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7세. 1977년 보도국에 입  
사해 홍콩특파원과 초대 북경특  
파원, 해설주간을 지냈고 2003  
년 춘천MBC 사장을 역임했다.



이강용(업무)

11월 2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9세. 1969년 4월 업무국  
에 입사해 영업 등 광고 업무에  
종사하다 2006년 12월 정년퇴  
직 했다.



이은명(보도)

12월 1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63년 보도국 기자  
로 입사해 편집부장, 해설주간,  
보도이사 등을 거쳐 MBC청룡  
사장과 대전MBC 사장을 역임  
했다.



임광혁(편제)

12월 21일 만성폐쇄성폐질환으  
로 수년간 투병하다 별세했다.  
향년 86세. 1969년 8월 미술부  
에 입사, 소도구 업무에 종사하  
다 1981년 12월 퇴직했다.



이관영(관리)

12월 31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86세. 1963년 시설부에  
입사해 기계 설비 분야에 근무  
하다 1986년 12월 차장으로 정  
년퇴직했다.



## 회/원/동/정



**정상모(보도)**  
(사)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정회원은 11월 25일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 지원 및 개발사업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발전시키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이사장(비상임)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11월까지 2년이다.



**박기병(관리)**  
12월 20일 모교인 강원도 양구군 용하초등학교에서 육군 제2사단이 주관하는 6·25참전용사명패 증정식에 참석했다. 박 회장은 1950년 학도병으로 입대해 백석산 전투 등 여러 전투에 참전했으며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이인용(보도)**  
MBC 퇴직 후 12년간 삼성그룹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급)으로 재직 중이며 삼성그룹의 사회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이회원은 삼성그룹이 연말 이웃사랑 성금으로 조성한 5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전달했다.



원에서 살펴보고 방송 아카이브 및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디지털 저널리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현우(ANN)**  
작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 재단이 (사)아나운서클럽과 체결한 MOU에 의거, 자유학기제 첫 강사로 위촉돼 직업 체험 '나의 꿈을 찾아서-아나운서 되기란?' 제목으로 경기 연천중학교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른말 교육 특강을 했다.



**김명철(기술)**  
2013년~2016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방송팀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2017년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됐다. 앞으로 각급 학교나 회사의 요청이 오면 방송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다.

**양성호(보도)**  
학술서적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브”

## 인사동클럽

라디오PD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은 12월 19일 낮 프레스센터 엠바고룸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17명의 회원이 참석했으며 김승월 총무가 2017년 결산보고를 했다.

장명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참석해 준 회원들께 감사하며 새 회장단에게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모임은 전 EBS 사장 우종범 회원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 동/호/회/소/식

## 문기회

기자들의 모임인 문기회(회장 정흥보)는 12월 15일 역삼동 '제우스스타'에서 4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원로 선배들의 격려사와 건배사에 이어 다양한 경품 추첨이 있었으며, 최근 가수로 데뷔한 전평국 회원이 즉석 공연을 펼쳐 회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 기우회

기술인들의 모임인 기우회(회장 조정구)는 11월 28일 역삼동 '제우스스타'에서 100여명이 함께 한 송년모임을 가졌다. 조정구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회칙개정과 차기 임원 선임이 있었다. 차기 회장에 선임된 문정철 회장은 '기우회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본사에서 다이어리 100권을 협찬하는 등 다양한 협찬품과 후원금이 답지해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 초록회

여자ANN들의 모임인 초록회(회장 임국희)는 12월 7일 도곡동 '경복궁'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다.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임국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해에는 더욱 돈독한 모임이 되도록 애쓰겠다'며 회원들의 건강을 당부했다. 장명호 회원이 초청 인사로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양묵 회원의 저서 '문제적 영화 Q, 51편의 숨은 그림 찾기'가 회원들에게 한 권씩 전달됐다.



## 문광회

광고인들의 모임인 문광회(회장 한웅희)는 12월 14일 을지로 4가 '임실한우촌'에서 송년모임 모임을 가졌다. 16명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문화, 역사유적 탐방을 겸한 모임을 더 많이 갖기로 했다. 한편 신년 모임은 1월 11일 저녁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문경회(문화방송, 경향신문 광고인 모임, 회장 우윤근)와 통합모임을 갖기로 했다.



전자랜드 price KING 프라임쇼핑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그룹 전자랜드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토종 기업 전자랜드는 레저스포츠, 철강, 농구단, 용접재료 등 국내, 외 8개 계열사 및 관계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전자랜드프라임쇼핑  
한국 12개 매장 중 가장 규모 있는 대표가전 매장점

전자랜드 POWER CENTER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가전매장

트윈도보스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동남아 최고의 홈쇼핑

리저스 크레스트 골프 클럽  
일본 원로 골프 명장으로 고급골프 리조트, 동해(강릉) 18홀, 서울 관악(강남) 18홀, 제주(제주) 18홀

신다골프클럽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골프장으로,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대중적인 골프장

SYS홀딩스(주)  
서울 용산에 위치한 사계곡 전자랜드 계열 기업

전자랜드 엘리먼트  
안전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리미엄 상설매장

고려제강  
전세계 70여개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세계 최고 강철의 특수 강재 기업

고려용접봉  
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용접재료 생산 기업

고려열연(주)  
고품질 철도 차량용 철도 부품 및 자동차 부품의 선두기업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시고 덮어뒀던 옛 앨범을 한번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귀한 사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MBC 탄생지에 동판을 묻던 날



장명호(편집)

2005년 1월 3일, '여기가 MBC 발상지'라는 것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직경 1.2미터 원형의 기념동판을 제작해 이공희 사장과 임원들, 이상희 방문진 이사장, 종로구청장과 의회 관계자들이 인사동 사거리에 모여 제막식을 가졌다. MBC가 탄생한 인사동 15번지에 '1960-70년대 극동방송과 TBC가 있었다'는 아주 잘 못된 소개책자를 보고 역사바로세우기가 시급함을 느꼈었다.

진작 MBC가 매입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역사박물관으로 활용했으면 이런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인사동 15번지, 정동 22번지, 여의도31번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귀한 기록 건축물들이다.



우리 문화와 정서를 담아내는 인사동仁寺洞 15번지는 MBC 탄생지다.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의 시원을 찾고 한 민족은 우리의 뿌리를 찾는다. 뿌리는 과거와 미래,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확실한 증표이기도 하다. 인사동 15번지는 MBC가 3-5층 스튜디오와 주조정실, 사무실로 9년동안 사용해오다가 정동으로 옮기며 타인에게 넘겨져 덕원 갤러리로 리노베이션되어 활용되고 있다.

###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골프의 산실産室



김광곤(기술)

요즘 LPGA, PGA에서 우리나라 젊은 선수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회심의 미소와 함께 MBC의 저력을 새삼 느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능력,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과 취미를 만들어 주는 사회의 기반이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늘 생각하던 중, MBC미디어텍 사장

으로 취임한 첫 해에 '청소년골프'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종목에 눈을 돌리게 됐다. 골프장을 설득하고 후원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MBC프로덕션, 대한골프협회와 힘을 합해 <제1회 MBC미디어텍 청소년골프 최강전>을 1999년 출범시켰다.

이후 우리 대회는 회를 거듭하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5회 우승 유선영(대원외고), 9회 우승 김효주(교동초등 6학년)와 허윤경(고등부), 11회와 12회 연속 우승 전인지(중3, 함평골프고1) 등 오늘날 세계여자골프계의 기라성들이 우리 대회를 통해 하나 둘 모습을 나타냈다.

당시 반월초등학생 장하나는 5회 대회에서 비록 5위에 머물렀지만 초등학생답지 않은 장타력과 뒷심으로 거목이 될 조짐을 일찌감치 보였다.

2005년에 와서야 비로소 '대한청소년골프협회(KYGA)'라는 단체가 생기고, '전국청소년골프대회' '국제청소년골프대회' '전국중고등학생골프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대회도 여럿 생겼지만 한동안 <MBC미디어텍 청소년

골프 최강전>은 '한국 청소년 골프'의 대명사였다.

당시 불모지였던 청소년 골프계는 이제 울창한 숲이 돼 해마다 새로운 얼굴의 청소년 골퍼들을 탄생 시키고 그 아이들은 금방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일이 너무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 시발점에 MBC미디어텍(오늘의 MBC C&I)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궁금하다





## 조화꽃이 열어 준 인생 2막

가톨릭병원 서울성모장례식장. 줄줄이 늘어선 근조화꽃 사이를 누비며 마주치는 상주들과 정중한 인사를 나누고, 비뚤어진 화환을 바로 세우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이근수(기술)회원의 모습은 MBC에서 같이 근무할 때와는 사뭇 달랐다. 그의 사업은 장례식장의 화환을 처리하는 일이다. 사무실과 작업장에서 두 번 그와 마주 앉았다.



**방송기술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게 되셨나요?**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저는 장호원 강촌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사회복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한 3만평 정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무의탁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틈틈이 강원도, 충청도 쪽 땅을 보러 다니며 장소를 물색했어요. 그런데 건축비랑 운영비 등의 조달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누가 이 사업을 권하더라구요. 특별한 지식도, 밑천도 없이 뛰어 들었는데 벌써 13년이나 됐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강남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그리고 성당 몇 군데의 장례식장에 진열했던 근조화를 처리하는 일입니다. 사용한 꽃은 폐기하고 화대(花臺)만 재생해서 화환 제작자에게 파는 겁니다. 결혼 축하 화환도 있지만 그건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 나와서 별로 돈이 안 되는데, 근조화는 매일 백여 개씩 나오니까 돈이 꽤 됩니다.

**국화는 국내산인가요, 수입산인가요?**

전에는 모두들 국내산을 썼는데 5년 전부터는 중국산을 7~80% 씩입니다. 국내산은 품질은 좋지만 수량도 적고 단가도 비싸요. ‘꽃을 재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텐데 저희는 사용한

꽃은 전부 폐기합니다. 일부에서는 더러 재생도 한다고 하던데, 그건 구매자를 배반하는 일이기도 하고 화훼 농가를 죽이는 일이죠. 최소한 성모병원과 아산병원은 백퍼센트 폐기합니다.

**꽃장사들이 상주들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나요?**

실은 그게 이 바닥의 젖 큰 어려움입니다. 특히 조화가 많이 들어온 상가에서 간혹 그런 일이 있어요. 꽃배달업체 사람이 상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미리 건넵니다. 장례가 끝나면 차를 갖고 와서 실어내는 거죠.

그럴 땐 우리들과 그들의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저는 사정없이 해치워요. 몇 번 그런 일을 겪었더니 ‘성모의 이근수에게는 안 통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상담 할 때 상주에게 미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예 근조화 폐기동의서를 받습니다.

**아까 보니까 상가를 계속 돌던데 왜 그러신가요?**

꽃 처리가 주업이지만 저는 매일 상가를 순방하면서 불편사항도 도와 드리고 발인 절차 상담도 해드립니다. 영업 차원이 아니라, 갑자기 당한 일에 경황이 없다 보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드리는데, 저는 참 즐겁고 보람도 있습니다. 떠나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13년 동안 장례식장 풍경도 많이 변했죠? 요즘 풍경은 어떤가요?**

네, 많이 변했습니다. 우선 문상객 숫자가 줄었구요, 근조화환도 줄었습니다. 음주단속, 금연구역 설정 이후부터 그러더니 최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더욱 그래요. 부의금 안 받는 곳도 늘었구요, 3년여 전부터는 상주도 출퇴근하는 상가가 늘었습니

다. 밤샘을 안 하고 집에 갔다가 아침에 나오는 거죠.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한동안 대기업에서 오는 화환이 줄었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문제는 꽃값인데, 꽃집끼리 경쟁이 심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사우회원들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도와 줄 수 있나요?**

도울 수는 있는데, 그 분의 적성이나 성실도를 봐야겠죠. 이 일 자체는 부가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현재 60대~80대 인구가 많기 때문에 향후 40년간은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신규 장례식장 허가는 불가능하구요, 기존 식장도 공간이 적어 확장을 못 합니다. 꽃집 자체는 전국이 체인화 돼서 편리해졌기 때문에 근조화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쓰고 난 화대는 개당 얼마에 파시나요?**

개당 5천원에 팝니다. 아까 잔뜩 쌓여있는 것을 보셨는데(사진) 그건 재작년 ‘메르스 파동’때 미처 처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시 삼성 같은 큰 병원이 문을 닫다보니 우리 장례식장으로 몰려와서 매일 9천개씩 처리했는데도 다 못하고 저만큼 쌓였습니다.

화환은 어느 가게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화대 자체는 전부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폐기할 일이 없습니다. 놔두면 다 돈

이 됩니다.

**원래 목적하신 복지사업을 위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아직 공개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은 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하면 제가 이미 사놓은 땅에 번듯한 복지 시설이 생길 겁니다. 현재도 ‘한국장애인직업교육원 열린플라워’과정을 통해 지체장애인들에게 꽃일을 가르쳐서 취업시켜주고 있고, 제 작업장에서도 두 사람을 고용해서 가르치다가 독립시켰는데 월 3백만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소감을 말씀 해주시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는 장례식장이, 저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뒤에 문상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고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명했던 분들의 상가가 의외로 쓸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사는 동안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참, 혹시 사우회원들 가운데 갑자기 상을 당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제게 연락 주시면(011-747-7338)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남 도와드리는 게 제 천직이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웃음)

**대답: 최 천(기술, 편집위원)**





## ‘불꽃 당신 김종학’을 그리며



오명환(편집)

2013년 한 여름, 62세로 떠나버린 불세출의 드라마PD 김종학의 작품세계와 연출철학을 총 9장으로 집약한다. 1979년부터 33년간 34작품에 대한 리뷰와 부문별 심층연구다.

대표작 <여명의 눈동자 1991>, <모래시계 1995>에 집중하여 사회적 메시지를 돌직구로 던져낸 그의 작가정신을 부각한다. 현대사의 고해성사와 징비懲戒적 가치는 물론 완성도와 작품성이 워낙 뛰어나서다. 이후 4반세 간, 이를 능가하는 드라마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년 5주기(7.23)를 맞는다. 조용하다. 쓸쓸하다. 선구자에 대한 평가는 5년 세월의 터울에도 기색마져 없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가大家를 언제까지 ‘임금체불과 송사의 벽을 넘지 못한 불행한 사업자’로만 방치해야 하는가? 자유로

운 영혼, 분방한 행보, 5.18항쟁, 위안부 문제 등 작품을 통해 일찍이 예증한 사건들이 속속 국가적 어젠더Agenda로 부각되는 오늘날, 끊임없는 역사 참여와 사회 발언자였던 그는 마땅히 ‘드라마 저널리스트 겸 리얼리스트’로 재평가돼야 한다.

두 세기 말초의 마지막 거장, 독보적인 루틴, 폭풍 시청률, 그리고 불행한 죽음마저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고 간 불꽃같은 그의 행적들... 잊혀져가는 그의 위상과 콘텐츠 속에 가득한 정수를 재조명하고 미래 희망 가치로 보전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일 것이다. 이번 저술도 그 뜻을 함께하는 보람 있는 작업이라 생각했다. 종학과 그의 드라마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일 것이다.

현업 때 그를 자주 만난 기억은 없다. 그는 3층 제작국이나 현장에 있었고, 나는 6층 편성국에 자리했음으로 평소 마주할 일은 많지 않았다. 다행히 그의 작품을 놓치지

않고 편편이 섭렵했다. 힘이 느껴져서다. 그와의 내밀한 만남과 깊은 교감은 모두 작품 모니터를 통해서 이뤄졌다. 2016년 5월, 후배 정훈(다큐멘터리 PD)의 주선으로 종학의 유족을 만나 저간의 어려운 사정을 경청했다. 딱했다.

내가 할 일은 ‘써서 남기는 일’뿐인 것 같았다. 닳아버린 기억을 애써 되살렸다. 흩어진 비디오를 다시 챙기고 20여 년 전에 적어 둔 잡다한 메모와 스크랩을 뒤졌다. 중증 암(전립선)투병에 집필 작업을 맞세웠다. 탈고까지 1년 반 동안 종학에 빙의했다. 몇몇의 언론 단체에 출간 지원을 타진했으나 고개만 떨궜다. 다행히 도서출판 ‘답게’(대표 장소님)에서 종학을 높이 평가해주고 흔쾌한 출판을 승낙해줘 고마울 따름이다.

TV드라마 60년사를 넘어선다. 만드는 것이 우선하겠지만 써서 남기는 것도 소중하다. 그것이 곧 드라마 역사가 된다. 하여 민용기 이사의 2주기 추모 글(본보 31호



2015.9)도 주저 없이 따 썼다. 그나마 기록이기 때문이다.

설날 후 나올 이 책은 한 TV드라마 연출가를 넓게 껴안은 최초의 단행본임을 자임한다. 그러나 편성 출신의 시각과 견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나와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부박浮薄한 드라마 트렌드에 대한 성찰이며 우리 시대에 요구된 진정한 드라마 기능과 가치를 제고提高하는 조그만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 우리의 전쟁, 그 기억과 기념



조성식(업무)

오늘은 서울 가는 날. 용산에 소재한 전쟁기념관에 자원봉사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내가 사는 이곳은 우리 사우회가 주최하는 <봄·가을 체육대회>도 가끔 열리는 산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무리를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우회 선·후배 여러분들도 깊이 느끼셨겠지만, 정년 후 MBC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면 단순한 노력 이상의 새로운 그 무엇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곳은 정들었던 MBC가 아니고, 새로 만난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은 목적과 친교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빨리 지나가는 세월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새해가 되면 MBC를 정년퇴직한 지 만 10년이 된다. 그동안 다소 바쁜 시간을 보냈고 무리를 감수하면서 보냈던 시간도 가끔 있다 보니,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제한된 지면에 자세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각종 보도 자료와 홍보자료에 의하면 전쟁기념관은 다른 나라의 시설에 비해 그 규모나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 물론 관람인원의 부류 그리고 국적의 다양성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의 규모나 관람객 수, 관람객의 부류나 국적의

다양성을 앞에 놓고 자부심을 느끼거나 흐뭇해 할 수만은 없다. 또 그 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은 다음과 같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 우리민족의 오랜 역사와 수많은 전쟁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기념관
- 세계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비참했던 전쟁 중 하나였으며, UN이 조직되자마자 세계 16개국 파병을 결의한 6.25 전쟁의 진실과 당시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는 기념관
- 호국영령의 정신과 역사적 사실이 조명되어 있는 기념관

이곳은 박물관이 아닌 기념관, <전쟁기념관>이다.

정년 후 짧지 않은 시간을 내가 활동해 온 이곳은 돌아가기만 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들러 보아야 하는 “돌아가는 삼각지” 부근의 <전



쟁기념관>이다. 그리고 이 기념관의 Docent (안내인)라는 나의 역할은 오늘도 이렇게 미련(?)한 무리를 감수하게 한다.

전쟁은 기억만 해서는 안 된다. 기념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나훈아의 노랫말



김승한(보도)

십 여년 전 포항MBC에서 “나훈아 콘서트”를 연 적이 있었다. 거액의 계약을 했던 터라 지역 관객이 얼마나 모일까 걱정했으나 두 차례 공연티켓이 모두 매진될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콘서트를 마치고 나훈아(사진) 씨와 저녁을 함께 한 자리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얘기가 오갔다.

“무시로, 잡초, 흥시, 영영, 이런 노래는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더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작사, 작곡 중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작사가 훨씬 어렵죠. 어떤 노랫말은 1년, 2년 걸려 쓰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공췌이라는 노래 가사는 10년 넘게 이리 고치고 저리 고쳤어요..



‘살다보면 알게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이렇게 시작되는 노랫말이죠. 별 거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겨우 가사가 완성되면 작곡은 얼마 안 걸립니다. 어떤 곡은 5분 만에 만들기도 하죠?”

“아니, 5분 만에 작곡을 한다구요?” 그는 작사가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첫째, 스스로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 노랫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진심을 갖고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헤어지는 연인을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쓴 게 ‘이미와 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로 시작하는 ‘무시로’였다. 그 노래도 나름대로 가사가 절실해서 히트했다고 본다.

둘째, 들으면서 단번에 공감해야 한다. 그러자면 쉽고도 사무치게 표현해야 한다. 재능이 부족한 자신은 그래서 수십, 수백 번 고민다, 노랫말을 시詩라고 한다면 좋은 시 안에는 이미 멜로디가 들어있다, 그 멜로디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작곡이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훈아씨 당신은 가수 이전에 ‘시인’”이라고 말했다.

그 날, 나훈아 씨는 국내 정치에 관해서도 여러 의

견을 말했었는데 그 식견에 또 한 번 놀랐다. 대중가수라는 선입견과 이런 저런 스캔들이 기억 속에 있었던 탓이었으리라.

그는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절감하고 노자老子의 도덕경을 배우고 있으며, 시사 잡지도 틈틈히 읽다 보니 국내 정치 행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했다. 당시 인근 지역에는, 시市에서 내 건 현수막과 표지석이 곳곳에 널려 있었는데 어른 키만한 돌덩이였다 ‘바르게 살자’라는 글귀를 검은 음각으로 새겨 놓았었다. 나훈아 씨가 오다가 그 걸 봤던 모양이었다.

“아니 이 도시가 범법자들만 사는 것도 아닌데 ‘바르게 살자’라뇨? 심부름꾼을 자처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이럴 수 있나요? 저 같은 일개 가수도 수백 번 고심을 하며 노랫말을 짓는데.. 아무리 뜻이 좋아도 고민을 해서 내걸어야죠.” 대략 이런 요지였다.

그 후, 관공서나 기업체에서 내건 구호나 캐치플레이즈를 유심히 보게 됐다. 작년 말, 경남의 향토기업인 간장회사 명예회장이 운전사를 노예처럼 학대했다가 전국적인 분노를 산 사건이 있었다. 그 회사 사훈은 “사원을 가족처럼”이었다.

진심이 한 오라기도 들어있지 않은 허황된 말장난. 반면 국민적



인 존경을 받아 온 기업도 있다.

유일한 박사(사진)가 1926년에 세운 유한양행은 ‘정직과 신뢰’를 ‘모토’로 삼았고 ‘유한양행 약품은 믿을만 하다’는 평판이 널리 퍼졌었다. 수익이 매년 크게 오르자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유 박사는 52%를 사원에게 넘겼다.

그게 1939년의 일이었으며 한국 최초의 ‘종업원지주제’였다. “유한양행의 궁극적인 주인은 약품을 믿고 써 준 사회다.”라고 그는 말했다. 1971년 타계한 그는 전 재산을 교육사업에 써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금도 사원들은 ‘정직과 신뢰’를 평생 실천하고 떠난 창업주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노랫말이나 기업 모토나 요체는 하나, ‘진심’이다.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에다함상조

###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



에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가 100% 출자한 상조회사입니다.  
믿음과 정직이 먼저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상조회사의 본보기가 될 1등의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 국내 최대, 자본금 500억원

- 공정위 '2016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보도자료 기준

· 국내 최대, 4개 은행사 지급보증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 국내 최고 수준, 지급여력비율 114%

· 국내 유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대 지급보증

### MBC 사우회 회원님과 가족을 위한 특별이벤트

가입문의 | 1566-6644

· 이벤트 기간 : 2018.01.16~18.04.30까지

· EVENT 1. 특별할인혜택! 7회 차 납입면제(할인)

· EVENT 2.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 1매 전원 지급(백화점, 대형마트 사용가능)